

# 각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혁신지구 전략 수립과 산업거점 정책 관련 전담조직 통합 추진 필요

## 서울의 산업거점 전반을 아우르는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

서울시는 2018년 1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2019년 1월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유망산업 중심의 주요 산업거점 조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각각의 계획에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서울의 신산업거점 조성 방향과 함께 주요 산업거점의 발전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G밸리, DMC, 마곡, 홍릉, 양재, 마포 등 6대 산업거점 조성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작업은 산업거점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기보다는 개별 산업거점별로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있다.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산업거점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산업거점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면 서울의 혁신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의 중심지가 교외 지역에서 도심으로 이동 중

혁신의 중심지가 과거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교외 지역에서 현재는 도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나온 지역 발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는 최첨단 앵커기관과 기업이 스타트업, 기업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서로 연결되는 지리적 장소를 의미한다. 최근 도시경제에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와 어메니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들이 밀집한 도시가 혁신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혁신이 발생하는 장소가 일자리뿐만 아니라 술집, 카페, 문화 공간 등의 어메니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지역의 균형 잡힌 자산 구조와 조화가 혁신지구 성공의 자산

혁신지구의 발전은 결국 혁신생태계에서 비롯된다(Katz and Wagner, 2014). 따라서

도시발전의 전략으로 다루어지는 혁신지구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생태계 개념이 주요한 핵심 중 하나이다. 혁신생태계는 경제적, 물리적, 네트워킹 등 3가지 주요 자산(asse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혁신의 동력을 발생시킨다. 또한, 3가지 주요 자산의 교집합을 통해 혁신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한다. 이러한 지역의 균형 잡힌 자산 구조는 혁신지구 성공의 자산이며, 그러한 이유로 특정 자산에 치우치기보다는 조화가 중요하다.

## 미국과 유럽의 혁신지구화 전략에서 정책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중요

주요 혁신지구로는 바르셀로나의 22아로바, 뉴욕의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과 루즈벨트 아일랜드, 캠브리지(미국)의 켄달스퀘어, 보스턴의 혁신지구, 런던의 테크시티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기존 도심과 가깝다는 위치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였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산업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나갔다. 혁신지구화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사 결정자의 강한 의지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도시정부는 강한 의지로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개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혁신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지는 않는다. 민간부문은 혁신지구에서 기술융합과 산업발전의 주체이며, 이를 통해 기업생태계를 형성해나간다. 또한 거버넌스에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며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혁신지구의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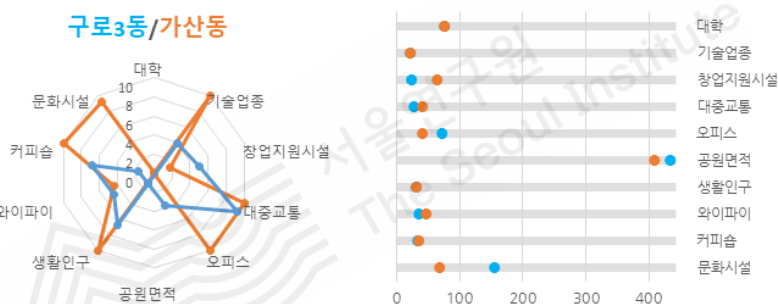
## 혁신지구 자산회계 방법론을 활용해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의 잠재력 검토

혁신지구의 자산은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킹 자산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Katz and Wagner 2014). 이러한 개념적 틀을 활용해 자산 회계(asset audit) 측정 방식을 통해 혁신지구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Hanna 2016).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자산회계 측정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자산회계 방식을 국내 실정에 맞춰서 도입한 이후 앞서 언급한 6대 산업거점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산 지표 중 경제적 자산으로 기술업종 종사자 수와 창업 지원시설을 이용하였다. 물리적 자산으로는 대중교통 승하차 인원, 오피스 연면적, 공원 면적, 생활인구, 와이파이 핫스팟을 이용하였다. 네트워킹 자산으로는 커피숍, 문화시설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원자료는 지표화를 위해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분석의 공간적 단위는 다수의 자산 지표를 동일한 공간 단위로 비교하기 위해 행정동으로 통일하였다.

## G밸리는 경제적 자산이 풍부하며,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도 준수

G밸리는 1967년 4월에 국가산업수출산업단지로 준공되었으며, 2000년 12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해당 지역은 첨단업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종사자의 학력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G밸리 발전협의회와 G밸리 경영실무자협의회 등이 주요 거버넌스로 활동하고 있다.

G밸리는 경제적 자산에서 강점을 보이며,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에서도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기술업종 종사자 수와 창업지원시설 모두 서울시 행정동 내 상위권에 위치한다. G밸리는 과거 수출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공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 자산의 공원면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공업용지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킹 자산에 해당하는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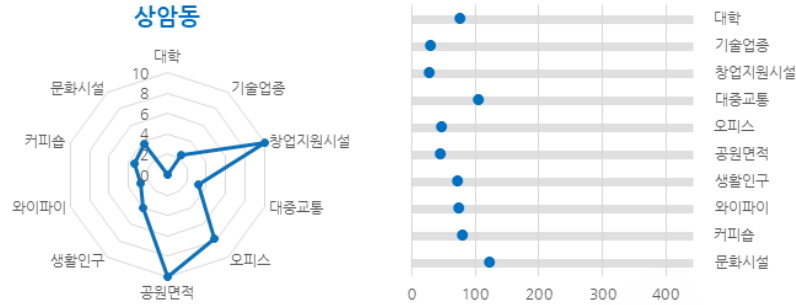
[그림 1] G밸리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와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 DMC는 경제적 자산이 풍부하며,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은 양호

DMC는 2000년 새천년 신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계획된 미디어 중심 클러스터이다. 미디어 관련 대기업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거버넌스가 DMC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도 DMC의 육성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DMC는 경제적 자산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에 일부 부족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업종 종사

자 수와 창업지원시설 모두 서울시 행정동 내에서는 상위권이다. 하지만 주요 지하철 역과 업무중심지 간의 거리가 있어서 대중교통인 도시철도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방송국 등 다수의 문화시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공공문화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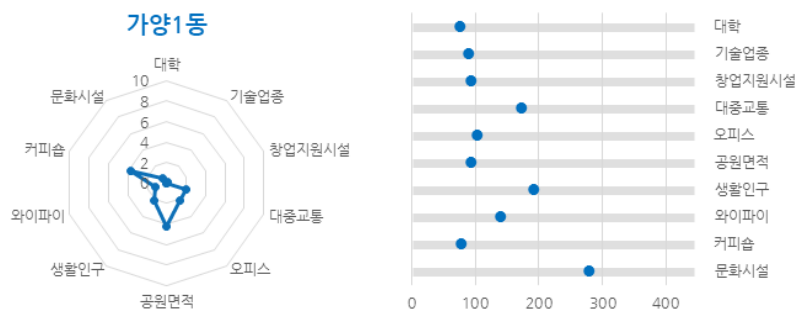


[그림 2] DMC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와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 마곡은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 일부가 부족하나 단기 성장 기대

마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강서구 마곡 일대를 R&D 중심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유치 권장업종과 연구면적비율을 지정하여 해당 기준에 미달 시 입주를 제한하였다는 점이 타 산업단지와 다르다. 마곡은 M-밸리 포럼과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산업단지 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마곡은 G밸리와 DMC와 비교하여 전체 항목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 중 일부가 특히 부족하였다. 경제적 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업종 종사자 수와 창업지원시설의 동별 순위는 100위 안으로 부족하지는 않으나 물리적 자산인 대중교통, 생활인구, 와이파이 핫스팟과 네트워킹 자산인 문화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하지만 마곡의 지속적인 개발로 이전보다 전반적인 상황은 많이 개선되었으며 이후 몇 년은 지역 자산과 역량이 급속하게 성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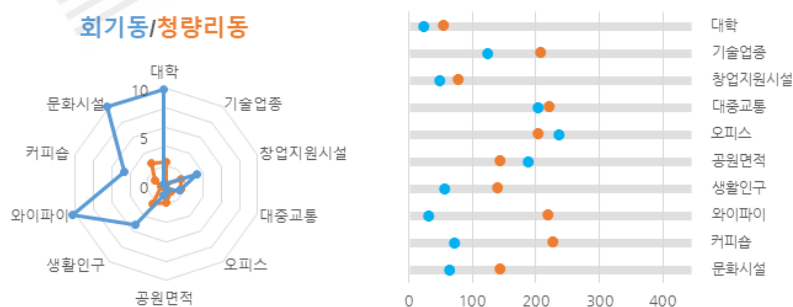


[그림 3] 마곡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와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 홍릉은 경제적 자산이 부족

홍릉은 2015년 4월에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0월에 서울 바이오허브가 개관하였다. 연구기관과 대학, 병원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살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로 육성할 예정이다. 홍릉포럼은 홍릉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 미래 의제 발굴을 위한 관내 대학과 연구기관 중심의 협의체이다.

홍릉은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크 자산은 충분하지만, 경제적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다른 산업거점에 비해 연구시설은 많이 입지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 관련 자산이 크게 부족하였다. 대학과 연구소가 산업거점 내에 입지해 있다는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캠퍼스타운 조성 and 창업 인큐베이터를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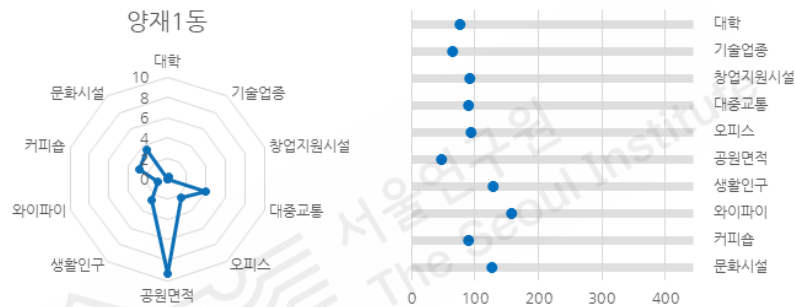


[그림 4] 홍릉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 /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 양재는 혁신지구 자산 지표가 다소 낮은 지역

양재는 2016년 8월 양재 테크플러스 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2월에는 양재R&CD혁신허브센터가 개관하였다. 자생적 R&D시설 집적지로 혁신거점으로서의 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광역교통은 편리하지만 산업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내부 교통연계는 다소 미흡하다.

양재는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킹 자산 모두 부족함을 보이는 지역이다. 물리적 자산의 공원면적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대중교통의 경우 자산 지표는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교통은 좋지 않은 편이다. 양재역 인근을 제외하고는 생활인구, 와이파이, 문화시설 등 도시 활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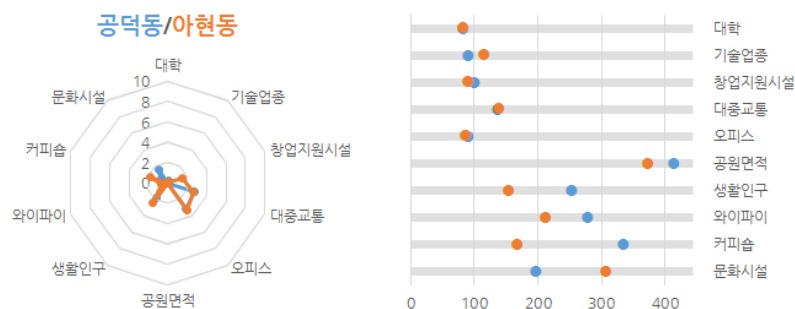


[그림 5] 양재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 /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 마포 역시 혁신지구 자산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

마포는 서울에서 핀테크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마포에 위치한 서울창업허브 별관에 2018년 4월 핀테크랩이 개소하였다. 마포 일대에는 창업관련 시설과 금융관련 지원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서울 본원은 창업허브 별관에 위치하고 있다.

마포는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킹 자산 모두 부족함을 보이는 지역이다. 서울창업허브가 입지하고 있으나 배후 지역의 혁신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인 공덕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으나 혁신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이 부족하다. 특히 물리적 자산인 생활인구와 와이파이, 네트워킹 자산인 커피숍과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였다.



[그림 6] 마포의 자산 항목별 1위 행정동 대비 점수 / 서울시 424개 행정동 중 순위

## 각 산업거점의 특징을 고려한 혁신지구화 전략 수립 필요

G밸리와 DMC의 경제적 자산은 서울 전체에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물리적, 네트워킹 자산 지표에서는 보완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지역은 물리적, 네트워킹 자산 지표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서울 전체 수준에서는 발전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리적 자산과 네트워킹 자산 부문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곡은 산업단지 조성 초기임을 감안하면 물리적, 네트워킹 자산은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해 있으나 향후 경제적 자산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적 자산을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양재는 특히 경제적 자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혁신지구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네트워킹 자산과 더불어 경제적 자산의 대대적인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 서울시 주요 산업거점 자산 분석 결과 개요

산업거점	경제적 자산	물리적 자산	네트워킹 자산	거버넌스 형태
G밸리	□	□	□	□
DMC	□	□	□	□
마곡	□ > □	□ > □	□	□
홍릉	□	□	□	□
양재	□	□	□	□
마포	□	□	□	□

홍릉과 마포는 현재는 모든 자산에 있어 다른 산업거점에 비해 부족하다. 현재 홍릉과 마포는 세 개 자산의 순위가 여타 거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인 혁신지구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산업거점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조직으로의 산업거점 계획 통합 필요

서울시의 혁신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산업거점별 계획 추진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산업거점의 현황과 혁신지구화 전략 단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여타 서울의 공간계획과 비교하고 시행하는 산업거점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수적이다.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거점의 관리를 도맡을 거점별 거버넌스 구조 구축에 더해 전반적인 서울시 산업거점 관련 정책을 전담조직으로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불어 실무적으로 혁신지구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실행할 재단이나 기관과 같은 실무조직의 설치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거점의 혁신지구화에 필요한 자원 운용의 측면에서 산업거점의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산업거점 관리와 운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공유 및 확산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